

# 추도사

**천운당 상원 큰스님!**

**높은 산일수록 석양에 긴 그림자를  
남기는 법이라더니 스님의 49재를  
모시는 지금에도 스님의 큰 법문이  
곧 들려올 것만 같습니다. 제법의 실상과  
생사거래가 본래 오고 감이 없는 것  
이지만 그 속에서도 스님이 남기신  
긴 그림자는 아직 이 땅 곳곳에 드리워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이곳 호남지역에 스님의 덕화가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스님의 원력의 땀방울이 서리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근세 이래로 불교의 기반이 약하다던 이곳에서 스님께서서는 평생 포교하고, 교육하고 복지활동을 펼침으로써 호남불교 중흥의 선봉이 되셨습니다.**

**소학교를 마치고 서울로 학업을 계속하러 가던 길에 내장사에서 박한영 스님을 만나 출가의 길에 들어선 것도, 다시 이종욱 스님을 만나 평생의**

**가르침을 얻은 것 역시 호남 지역에 불조의 혜명을 밝히고자 했던 원력보살의 깊은 불연이었을 것입니다.**

**스님께서서는 높은 산이셨지만 낮은 동산처럼 중생들 곁으로 몸을 나투셨습니다. 일찍이 화엄사 주지를 역임 하셨지만 광주의 상무대 옆 허허벌판에 천막 포교당을 열면서 향림사의 첫발을 닦으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변두리 거친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찬불가를 보급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친히 다가가시니 이것이 현대 한국불교에서**

**포교당운동과 문서포교, 그리고 청소년 포교는 물론 찬불가 보급의 신기원을 여는 것이었습니다.**

**스님께서서는 큰 강이셨지만 작은 내처럼 사람들을 품으셨습니다. 일찍이 교육의 중요성에 눈뜨신 스님은 향림사에서 어린이 · 청소년 포교에 힘쓰는 한편, 정광중 · 고등학교의 이사장으로 재직 하시면서 이 나라의 동량들을 길러내기 위해 힘쓰셨습니다. 또한 향림사에서 40여년간 150여명의 어린이를 길러 내고 20여명의 출가자를 배출함으로써**

**복지활동의 기틀을 잡음은 물론 불교계와 사회를 이끌어가는 역군을 양성하셨습니다. 아울러 신도교육에도 힘써서 광주불교대학과 대학원을 설립하고 이 지역 포교사를 배출함으로써 광주·전남 지역의 포교역군을 육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군 장병과 재소자 등, 부처님의 가르침이 누구보다 필요한 사람들에게 항상 광명을 주셨습니다.**

**스님께서서는 채우기 보다는 비우는 무소유의 삶을 사셨습니다. 향림 유치원과 향림 어린이집,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향림원 등을 통해 사회 복지활동에 힘쓰시며 베품을 실천하셨으며 또한 향림사 직원 자녀의 교육비 일체를 지원하는 등의 자비행을 실천하셨습니다. 언제나 비우는 삶을 사셨지만 비운 곳에는 다시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차고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일생을 올곧은 수행자이면서 포교, 교육, 복지에 헌신하신 스님의 모습은 이 시대의 부루나 존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루나존자는 부처님께**

자신의 고향 수로나국에 가서 포교를 하겠다고 간청하여 새로운 땅에 불법을 펼쳤습니다. 스님 역시 당신이 태어나신 이곳 호남 땅에 불교의 기치를 높이 올리시고 수많은 사람들을 불법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높은 산이시고 큰 강이셨던 천운 큰 스님. 이제 저희 종도와 모든 사부대중들은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포교·전법의 사명을 더욱 깊이 새겨서 불법을 더욱 선양할 것입니다. 더욱 낮게, 그리고 더욱 가까이 중생의

**삶 속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들어  
가겠습니다. 이제 큰스님께서서는 하루  
빨리 환도중생 하시어 이 땅의 중생  
들에게 다시 한 번 밝은 지혜를 전해  
주시길 간청하면서 추도사에 가름합니다.**

**불기 2554년 8월 31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